

2천억원대 국가예산 확보

순창군, 총사업비 기준 2074억원... 국비 1485억원

순창군의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074억원(국비 1,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2천 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인 1,550억원 보다 무려 52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군 예산 5,000억원 달성목표와 더불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 371억, 농업·농촌 분야 277억, 경제·SOC 분야 630억, 문화·관광분야 121억, 안전·환경 분야 675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의 SOC 감축, 복지에선 증액, 정부세수 결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재터널개설, 구릉 위험도로 개선, 가남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SOC분야에서 총사업비 506억원(19년 국비 6.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도로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촌개발 분야 공모사업에서 기초생활 거점육 성사업으로 적성, 유등, 풍산면 등 3 개면이 선정돼 11개읍면 전체의 소재 지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남산지구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개 마 을 자율개발사업 등 군 전체적으로 28개 사업에 310억원의 공모사업 예 산을 확보해 정주여건과 삶의 질 또 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깨끗한 물 관리와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 업(184억원)과 섬진강을 더욱 깨끗하 게 보존하기 위한 순창 공공하수처리 장 증설사업(167억원), 신촌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140억원)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됐다.

이을러 발효·미생물 분야에서도 장

내유용미생물은행육성사업(300억원), 동부권 식초산업 육성 프로젝트(65억 원), 투자선도지구내 웰드푸드사이언 스관 건립사업(40억원) 등 5개 사업에 4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순창의 미 래성장동력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의 이같은 성과는 국가예산확 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 려온 황승주 군수를 필두로 군 관 계공무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 로 풀이된다. 군이 운영 중인 세종사 무소와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와의 체 계적인 공조유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황승주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예산확보 성과는 군민과 공 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이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밑거름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하기위한 조직으로 대전환

남원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 행한다. 이를 위해 부서 통합과 분과, 신설을 통해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 주요정책 및 지역 현안사 업을 원활히 추진해 민선7기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남원시 조직개편안은 3개과를 증설 하고, 담당급을 5개 늘리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와 농촌활력과를 신설해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에 속도를 올리고,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의 주요현안인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시장 직속 부서인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 담당을 신설하고, 이외에도 각종 행정 수요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도록 직제를 개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모 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만 일선에서 남원시 행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고, 철저한 자체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뤄졌으며, 공무원들

이 새롭게 구성되는 조직의 일원으 로써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 했다.

남원시는 지난 4월부터 직제 및 정 인 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토론회와 자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사전심사를 마 쳤으며,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내년 1월 중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지난 14 일 임실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임실 군청, 임실군의회, 교육지원청, 농협 중앙회, 산림조합, 한국전력, 경찰발 전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안전 자회, 경찰서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치안 현안문제를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임실지 역의 범죄 예방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아동·청 소년·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



의회이다.

위원장은 임실군수, 부위원장은 경 찰서장이며, 군의회 의장, 교육장 등 이 당연직 위원이다.

임실지역 범죄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

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 추진, 주민 탄력순찰 제도 정착 등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치안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주현 서장은 "치안유지의 가장 이 상적인 모델은 기관·단체와의 협을 통한 치안유지 활동이다.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 역치안 강화의 중심 협의회가 될 것 으로 생각한다. 치안협의회 참여 기 관·단체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치안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체납징수분야 기관표창

남원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 개최한 2018년 지방재 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 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 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 천만원을 받는다. 남원시는 폐교 처리된 서남대학교의 체납액을 징 수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시 관계자들 은 "블새공략! 폐교위기에에서 보물 찾기"라는 주제로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경매또는 공 매)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재경

기여금을 통해 체납액 5천만원을 충당하는 등 폐교현상이 우려되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주었 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가 2010 년부터 지방재정 우수기관에 8번 이나 선정되고 이번 세입증대분야 에서 성과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 노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자체 재원이 열악한 시로서는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한 해 농사를 점검 및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 '한 해 농사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한 해 농사 를 되짚어보고, 점검 및 평가하는 시 간을 가졌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 민 군 수가 참석한 가운데 150여명의 강소 농, 농업인대학생, 학습단체회원, 귀 농민, 시범사업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 데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임실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는 2018년도 한 해 동안의 농촌지도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2019년도에 개선 해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군은 이번 평가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실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 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종합평가회에서는 김미림(미래 클린에듀 대표) 강사의 '농업인 미래 비전과 고객만족'이란 주제로 유익한 특강과 함께 운송호 성수면 농가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자세 라는 주제로 우수사례 발 표가 있었다.

심 민 군수는 "올해에는 폭염과 가 물에 따른 작황 부진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임실농업의 든든한 버 락이 되어 주셨다"며 "임실농업이 활력을 되찾고, 돈버는 농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 신속작목 발굴 등 행정 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직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14일 소중한 시민의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부 공무원과 직 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남원시가 정보유출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보보 호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역임한 원광대 이형호 교수 를 초빙해, 간부공무원과 직원 250여명 을 대상으로 정보유출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관리방법, 보안사고 예방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남원시 홍보전산과장은 "정보보호는 제도적, 기술적 대응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자주 발 생하는 정보유출 사고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 가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무 원 모두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책임 을 준수,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추운날씨엔 심장 뇌혈관질환 조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겨울철 심 뇌혈관질환관리 및 합병증을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 다.

겨울철은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 승으로 인해 심 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이 많이 발 생한다. 이와 관련 군 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자기혈관 숫자를 바로 알고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 도록 당노 고혈압 클리닉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보건 담당인력 30명이 취약계층 가정 및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 관과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심 뇌혈 관질환관리와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 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평 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규칙적인 운동 등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